

- **주요 뉴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 내년까지 고금리 유지 필요, '24년 금리인하 가능
 - ECB 총재, 내년 경기가 부진해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지지
 - 중국 코로나 19 감염자수, 5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제 봉쇄 및 반정부 시위 확산
 - OPEC+, 생산량 감축 검토할 가능성. 최근의 유가 하락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 지속 예상 및 중국 경제 봉쇄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5%], 달러화 강세[+0.7%], 금리 약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관련주 약세 등으로 0.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5% 하락, 엔화는 0.2%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 둔화 우려와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상 지지 발언이 상충
 독일은 중국의 코로나 시위 및 고물가 우려 등으로 2bp 상승
- ※ 원/달러 1M NDF환율(1341.0원, +0.8원) 0.1% 상승, 한국 CDS 상승

주 가					환 율					
		11/28일	11/25일	전일대비			11/28일	11/25일	전일대비	
주 가	미국	3,963.9	4,026.1	-1.54%	국채 금리 10y	미국	3.68%	3.68%	-0bp	
	유럽	437.85	440.73	-0.65%		독일	1.99%	1.97%	2bp	
	중국	3,078.5	3,101.7	-0.75%		영국	3.13%	3.12%	0bp	
	일본	28,163	28,283	-0.42%		CDS 5y	한국	51bp	50bp	1bp
	한국	2,408.3	2,437.9	-1.21%			중국	84bp	73bp	11bp
	달러지수	106.67	105.96	0.67%	위험 지표	EMBI+	-	398	-	
유로화	1.0340	1.0395	-0.53%	VIX		22.20	20.50	8.29%		
엔화	138.91	139.19	0.20%	WTI유		77.24	76.28	1.26%		
환 율	위안화	7.2069	7.1650	-0.58%	원자재	구리	359.3	362.8	-0.95%	
	원화	1,340.2	1,323.7	-1.23%		금	1,740.8	1,754.9	-0.8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내년까지 고금리 유지 필요. '24년 금리인하 가능

-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목표(2%)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반적으로 노동 및 서비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인플레이션 안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
- 금리경로는 9월 예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금리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 '24년에는 수급 개선 등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떨어지면서 명목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 당분간 경제성장률이 장기 평균을 하회할 수 있으나 경기침체는 피할 것으로 기대. 아울러 경제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 최근 일부지역에서의 임대료 인하는 향후 노동시장 과열이 식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발언
- 한편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 역시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상당 폭 추가 인상한 후에, 해당 수준을 상황에 따라 '24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최근 시장에서는 12월 FOMC에서 0.5%p의 인상을 예상
-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일련의 공급 충격 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 클리블랜드 연은의 메스터 총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 있기에, 그 동안 시행한 통화긴축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골드만삭스, 내년 미국 증시는 보험 흐름 예상

- '23년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정체 등으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이나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 내년 S&P500 지수는 1/4분기 및 2/4 분기에 각각 3,600, 3,900을 기록한 후 연말에 4,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11/28일 3,964 -1.5%)

■ ECB 총재, 내년 경기가 부진해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지지

- 라가르드 총재는 기록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된다고 해도 당분간 금리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 보다 긴축적인 금융 여건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첨언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은 유지될 필요

- 닛 총재는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24년에야 목표치인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 이에 ECB는 물가안정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

■ 중국 코로나 19 감염자수, 5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제 봉쇄 및 반정부 시위 확산

- 당국은 11/27일 감염자수가 전일(39,791명) 대비 증가한 40,347명이라고 발표.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제활동 재개가 빨라야 내년 3~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정. 다만 일부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경제활동 재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아울러 시장에서는 이번 코로나 19 재확산이 당분간 중국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

■ 일본 총리, 정책 목표 달성 위해 일본은행과의 협력 지속할 방침

-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행이 취약한 경제성장을 돕도록 지원할 것이며, 계속해서 임금상승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이번 발언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정책 전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

■ 호주 중앙은행 총재, 향후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편

- 로우 총재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다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

■ OPEC+, 생산량 감축 검토할 가능성. 최근의 유가 하락을 반영

- OPEC+ 산유국들이 이번 주말 회의에서 추가적인 공급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지난 달 미국의 비난 속에서 생산 감축을 단행했으나 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 지난 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도 수급 개선을 위해 공급을 줄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29 현지시각 기준)

- ECB 부총재 및 영란은행 총재 강연, 미국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전망, 경기침체가 경미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 주의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consensus forecast on recession risks complacency)

- 전문가들은 강한 노동시장,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미국의 경기침체가 단기적이며 완만할 것으로 예측.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금리는 임금 및 공급망 재편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상당기간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
- 긴축적 재정정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유동성 감소 여건에서 은행은 대출에 보다 신중할 가능성. 또한 유럽은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봉쇄 강화에 따른 성장둔화에 직면. 미국의 경기침체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이에 따른 실제 충격은 훨씬 심각할 소지

■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성과도 있지만 향후 많은 노력이 요구 - 블룸버그

(Has China's Deleveraging Campaign Achieved Anything?)

- 시장 일각에서는 지난 4년간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이 막대한 투자 손실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면서도 기업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특히 지방정부조달 기구(LGFV)가 가장 큰 회색코뿔소로 부각되는 등 부채위험이 여전함을 지적
- 그러나 디레버리징 이후 부채에 대한 사고방식이 변화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기업들은 더 이상 부채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숨겨진 부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대마불사라는 통념도 크게 감소
- 중국은 세계에서 부채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재정개혁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 다만 인플레이션과 소폭의 경제 성장, 저금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채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한 민스키 모멘트는 회피가 가능

■ 스태그플레이션, '23년 시장을 지배할 주요 위험 - 블룸버그

(Stagflation Will Rule 2023, Keeping Stocks in Peril)

- 최근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참가한 388명의 응답자 가운데 50% 이상이 내년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높은 확률의 경제 시나리오로 전망. 한편 연준의 긴축기조 유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을 글로벌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목
- 이는 최근 랠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내년 주식시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 한편 응답자의 60%는 내년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 미국 주택가격, 내년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 압력 높아질 가능성 - 블룸버그

(Rising Inventory Will Be the Housing Market's Next Problem)

- 지난 10개월 동안 모기지금리는 3%대에서 7% 수준으로 급등해 수요를 위축시켰지만 주택가격 하락은 제한적. 이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때문. 그러나 최근 주택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급 확대 신호가 관측
- 매년 봄 해당 비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공급이 확대될 소지. 이에 더해 내년에 모기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수요를 계속해서 억제할 경우 기존 주택가격을 뒷받침했던 수급 균형이 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주요국 노동력 부족, 경기침체 발생해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할 전망 - 블룸버그

(There's a Job-Market Riddle at the Heart of the Coming Rec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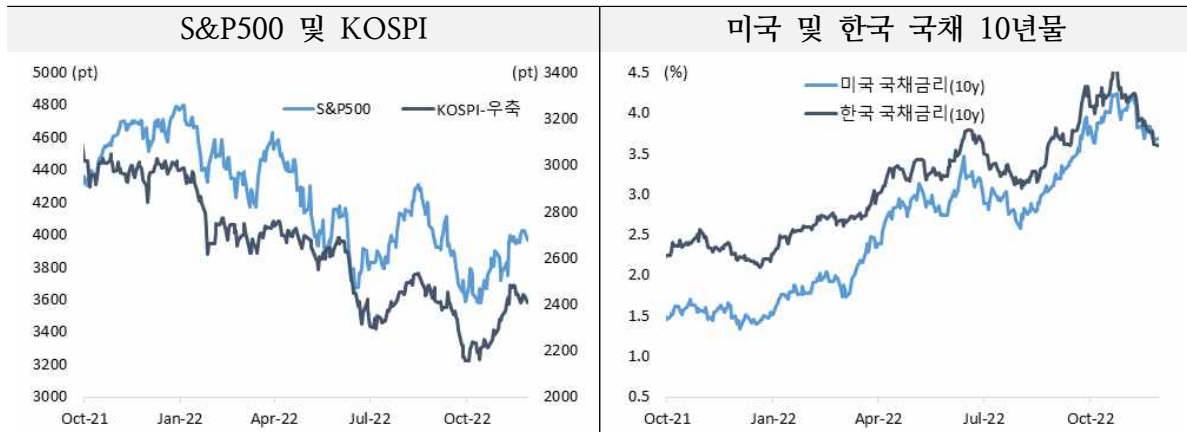
■ 미국 기업의 이익률, 향후 소비감소 고려 시 장기 평균으로 회귀 예상 - Financial Times

(Margins are still too high)

■ 이탈리아의 과도한 정부 보증채, 확장 재정의 걸림돌이 될 우려 - 블룸버그

(Italy Has a \$127 Billion Debt Problem It Can't Easily Resolv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